



# 신라 금령총의 장신구 그리고 사람들

- 현재 관점의 장신구 검토 및  
장신구 이용자에 대한 접근 -

The Silla Geumryeong-tomb's ornaments  
and people

- Access to the ornaments review and archaeological  
approach to its users -

김 재 열  
한국문화재재단 부팀장

## I. 머리말

## II. 현재 관점으로 본 금령총 출토 장신구

## III. 금령총 장신구 이용의 세 참여자(亡人 · 葬禮人 · 巨匠)

## IV. 맺음말

# 국문 요약

금령총은 경주 능원 북단에 자리한 신라 마립간기 한 고분이다. 1924년 첫 발굴됐고 2019년 재차  
발굴됐다. 2022년 지금, 지난 성과와 고심을 담은 특별 전시가 성황 중이다.

금제 방울 출토를 기념해 금령총으로 이름 붙여진 이 고분엔 금관, 금허리띠 등 귀한 신라 귀금속  
장신구도 함께 발굴됐다. 금령총은 신라 왕자 무덤으로 인식됐는데 금은 장신구가 대체로 작은 제구  
의 어린 사람에게 어울릴 법한 소형 물품이기 때문이었다.

이 글에선 금령총 장신구를 소재로 물건과 그것을 다룬 사람들을 조명했다. 금령총 장신구 발견  
이후 쌓인 신라 장신구 연구 시각으로 금령총 장신구를 살폈다. 금령총 금관의 특수성, 금령총 금허  
리띠 과판의 독특한 눈속임 제작법, 금령총 여러 장신구에 동일 반복 구사된 유리/보석 복합 장식을  
설명했다.

장신구는 인공 유물이기에 어떤 방식으로든 사람이 개입되어 있다. 이 글에선 장신구 이용에 관  
여한 세 주체 망인, 장례인, 장인을 탐색하였다. 금령총 망인이 유아인 이유를 되짚고 그에게 부여된  
지위와 일부 장신구 不在에 반영된 짧은 생애를 살폈다. 다음 장례의 실질적 주도자인 장례 주관자  
를 살폈다. 장례 기간 그가 준비한 장례용 장신구(금관·금허리띠·금동신발 등)를 도출해 장례자  
의 존재를 설명했다. 끝으로 장례 물품을 만든 장인을 살폈다. 금령총과 천마총 금허리띠를 만든 인  
물의 공통됨을 따져 신라 장신구 전문 장인에 대해 접근했다.

죽음과 장례란 무대에 올라선 주연은 망인, 장례자, 장인이며 그들은 물건으로 얹혀있다. 이 논문  
은 금령총 장신구를 주제로 삼자의 상관관계와 신라 사회를 탐색하고자 했다. 그 시작으로 장신구를  
단서로 금령총 망인, 장례자, 장인의 일차적인 존재를 설명했다.

**주제어 :**신라, 금령총, 금관, 금허리띠, 금제 방울, 장신구, 망인, 장례자, 장인

## I . 머리말

금령총은 1924년 발굴된 신라 고분이다. 1921년 금관총 발굴이 지닌 약점을 극복하려 일본 관학자에 의해 기획된 발굴조사였다. 앞선 금관총 못지않은 금관과 금허리띠 등 금속 장신구류가 출토됐고 금제 방울 출토에 의미를 뒤 ‘금령총’으로 이름 붙였다. 이후 1932년 금령총 발굴보고서가 간행됐다(朝鮮總督府 1932).

이 글 주제인 장신구에 초점 맞추면, 1932년 발굴보고서엔 장신구 설명과 금령총 피장자에 대해 추론됐는데 금관·금허리띠를 보유한 신라 왕자로 압축된다.

금령총 주인공에 대해선 현재도 받아들여지고 있다. 금관과 금허리띠 크기가 작기 때문에 성인에 채 이르지 못한 어린 망자로 인정되고 있다(崔秉鉉 1992). 금령총 귀금속 장신구는 관, 허리띠, 귀걸이 정도가 여러 개별 연구에 부분으로 다뤄졌으며 신라 귀금속 장신구 절정기인 천마총 물품 즈음 시기에 위치하는 것으로 논증되고 있다(이한상 2004, 咸舜燮 2012). 지난 2019년 금령총이 재발굴됐다(신광철 2021). 1924년의 금령총 기마인물형토기와 꼭 닮은 마형토기가 봉토 주위에서 발굴되는 새롭고 놀라운 성과가 있었다. 최근 성과는 1932년 보고서의 국역문 간행인데 난해한 일문이 우리말로 풀린 덕에 과거 금령총 발굴자 시각을 한층 들여다보게 됐다(경주시 신라문화유산연구원 2018). 현재는 국립경주박물관 특별전 ‘금령 어린 영혼의 길동무’가 성황 중이다(국립경주박물관 2022).

이 글은 금령총 장신구를 소재로 삼았다. 고고학 유물은 인공물이기에 어떤 방식으로든 인간의 흔적이 남아있기 마련이다. ‘장신구’란 유물 자체와 그것을 이용한 인간 행위와 의도를 조금이나마 읽으려는 노력이 이 글의 주제이다.

금령총 장신구 ‘물건’에 대해선 발굴이 있은 백여년 가까이 흐른 현재 관점으로 설명한다. 다음 금령총 장신구 이용에 참여한 주체를 亡人, 葬禮人, 匠人으로 나눠 살핀다. 망인은 이 모든 일이 시작된 계기다. 망인 죽음 이후 진행된 금령총 무덤 조영과 장의 일체는 장례 주관자에 의해 실천된다. 막대한 부장품(이 글에선 장신구)을 실질적으로 만든 이는 장인이다. 셋 가운데 하나가 빠져도 무덤과 제의의 최종 완성은 어려워진다. 금령총 장신구를 통해 이 삼자에 대해 접근하도록 한다.

## Ⅱ. 현재 관점으로 본 금령총 출토 장신구

### 1. 금제 방울 및 금제 드리개 그림 1

‘금령총’ 명명의 계기가 된 유물이다. 금제 방울 2점과 드리개 4점이며 주피장자 우측 허리춤 부근에 출토됐다. 방울과 드리개 뭉치를 주피장자 우측 허리-다리 사이 올려 부장했다. 서봉총 금허리띠의 금제 귀걸이(太環式)와 부장 방식이 비슷하다.

금령총에 금제 방울은 허리춤 출토품과 금관 드리개(垂下節) 방울이 존재한다. 금관용 방울은 감옥과 드림이 장식되며, 허리춤 금제 방울은 그보단 간소하다. 경주 고분 출토 금제 방울은 황남대총 남분, 금관총 금허리띠 대형 요폐 끝자락의 방울이 있다. 대다수 장신구는 시각 요소를 의도했지만 금제 방울은 시각에 더해 청각 효과를 함께 노린 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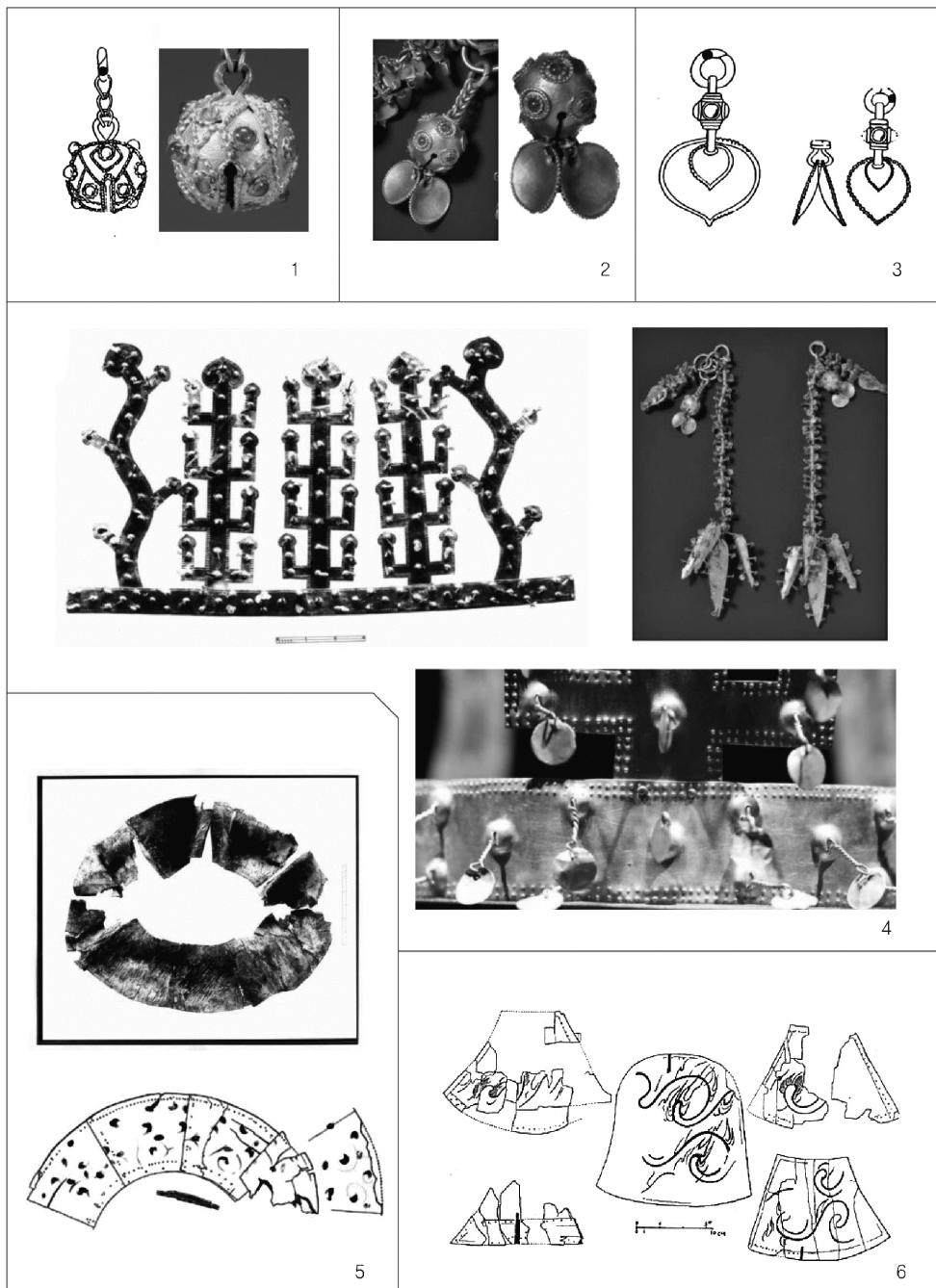
금제 방울엔 금제 드리개 4점이 공반됐다. 주환 없이 소환연접입방체 중간식과 심엽형 드림 구조이다. 주피장자/순장자 귀걸이와 다른 중간장식 종류며, 드림 자엽과 중간식의 청색 유리 감옥이 특징적이다. 감옥과 금선, 두 희귀 재료를 동시 사용한 복합 장식은 금령총 여러 장신구에 계속 등장한다.

### 2. 금제 수지형 대관 그림 1

금제 수지형 대관이다(이하 금관). 1921년 금관총 금관 다음으로 발굴된 금관이다. 신라 수지형 대관은 시원(발생/형성)-표준(성립/발전)-퇴화(전환/쇠퇴) 단계의 전개 과정을 거친다(咸舜燮 2012). 금령총 금관은 천마총 출토품과 더불어 신라 수지형 대관 표준형의 최종 발달형으로 논의됐다(李漢祥 2000, 咸舜燮 2012 · 2015). 단 두 금관의 제작 시기는 선후로 의견이 약간 나뉜다.<sup>1)</sup>

다른 신라 금관에 드문 금령총 금관만의 특수성은 ①대륜 문양이 타출 점열문 방식이며, ②경옥제 곡옥이 부착되지 않은 점이다. 현존 금관(교동 · 황남대총 북분 · 금관총 · 서봉총 · 금령총 · 천마총 금관) 대륜 문양은 축조 점열문이 주류다. 예외는

1) 신라 금관 순서에 대해 이한상은 교동 금관 → 황남대총 북분 → 금관총 → 서봉총 → 금령총 → 천마총 순서로 본다(이한상 2004). 험순섭은 교동~서봉총 금관 연대순은 같으나 천마총 → 금령총 금관 순서로 달리 본다(咸舜燮 2012).



[그림 1] 금령총 출토 금제 방울, 금관, 입관, 모관

(1. 금제 방울(허리춤), 2. 금제 방울(금관), 3. 금제 드리개(허리춤), 4. 금관 대륜/타출 점열문 장식, 5. 백화수피 입관, 6. 백화수피제 모관)

점열문이 아예 없는 교동 금관과 타출식 점열문이 장식된 금령총 금관이다. 타출 점열문계 대륜은 금동제 대관(이하 금동관) 가운데 황남대총 남분·금관총·황성동 강변로 34호 출토품이 있다. 지역 고총으로 시야를 넓히면 부산 복천동 1호(동아대), 대구 달성 37호분 1곽, 대구 문산리 3-1호, 경산 임당 6A호 금동관이 타출점열 문양 계열 대륜이 사용됐다.

1단 → 3단 → 4단으로 달라지는 입식 외형이 수지형 대관 변화상의 제일 요소라면, 타출식과 축조식 점열문으로 양분된 대륜 문양은 장기간 유지된 대관의 지속성을 의미한다. 요약하면 금령총 금관은 수지형 대관 표준 발달 단계에 속하는 타출 점열문 계열의 최상위 귀금속제 冠으로 정리된다.

경옥제 곡옥이 없는 금관은 금령총과 경주 교동 금관 두 점이다. 교동 금관에 곡옥이 없는 이유는 시기성 때문이다. 금령총 금관 곡옥 不在는 경옥 사용을 중지한 장례 방식의 변화, 경옥 조달 문제 등이 거론되나 예단하기 어렵다(박유림 2018:108). 금령총 즈음 이후에도 곡옥은 일정량 사용되기 때문이다. 다른 시각에선 금령총 피장자 죽음의 특수 상황이 금관의 곡옥 부재를 유발하지 않았을까 예상된다.

금령총 금관용 드리개(垂下飾) 구조는 세환식 주환, 장신형(主飾)·단신형(副飾) 중간식, 금제 방울(金製鈴)로 이뤄졌다. 금제 방울이 금관 드리개에 사용된 예는 금령총 금관이 현재 유일하다. 장신형 드림은 펜촉형, 단신형은 각목문대 심엽형 드림이 사용했다. 단신형은 드림에 소형 자엽을 금실로 부착했는데 금관총 귀걸이(순장자 착장품) 중 닮은 예가 찾아진다.

### 3. 백화수피제 입관 笠冠 그림 1

현대의 챙이 넓은 모자 모양을 닮은 신라 冠이다(咸舜燮 1999).<sup>2)</sup> 천마총 백화수피제 기마인물문 채화판 및 금제 우각형 금구, 대구 달성 55호 금동제 환상판, 경산 임당 1A호 금동제 우각형 원형판의 유사 예가 있다.<sup>3)</sup> 이중 임당 1A호 입관은 귀금속제 이면서 실물이 현재 유존한 매우 귀한 사례이다. 임당 1A호 금동제 입관은 양 끝이 원뿔형이지만 금령총 입관은 부채꼴 모양으로 차이난다.

2) 1932년 보고서에 冠帽鐫으로 기술됨.

3) 경산 임당1A호분 금동제 우각형 원형판과 유사예는 장정남(2020)을 참조했다.

## 4. 모관

### 1) 백화수피제 모관 그림 1

1932년 금령총 보고서엔 백화수피제 모관이 보고됐다. 보고서에 실린 도면을 토태도 살피면 금령총 모관은 백화수피제 원정형과 방정형이다(출토수량 7점). 방정형 모관에 밑단이 달렸는데 금관총-천마총 금제 모관 역시 밑단 부착형이다.

1932년 금령총 보고서 모관 중엔 밑변이 볼록한 사례가 있다. 현존 귀금속 모관 밑변이 머리 정수리 모양을 따라 오목한 것과 대조된다. 공반된 금령총 입관 테두리 모양과 닮았는데, 입관 파편을 모관으로 오인하지 않았나 추측된다.

현재 개최 중인 금령총 특별전에서도(국립경주박물관 2022), 이들 백화수피제 유물은 冠으로 보기 어렵다고 소개하고 있다.<sup>4)</sup> 이에 비중을 두면 금령총엔 유기질 모관이 부장되지 않은 것이 된다.

### 2) 기마인물형 토기의 모관 그림 2

금령총 유물 중 모관이 잘 드러나는 것은 토제기마인물상이다. 기마인물형 토기 주인상은 머리에 모관을 올려 쓰고 있다. 현존 금제 모관과 비교하면 기마인물상 모관은 꽤 사실적으로 표현됐다. 그가 쓴 모관은 정수리가 둥근 원정형이다. 모관 정면 꼭대기에 달개와 장식 파편이 부서진 채 남았는데 관식이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모관 후면엔 삼각형 덧판이 부착됐다. 이 부분은 황남대총 남분-금관총-천마총 금제 모관에 일관되게 표현된 후면 장식으로 신라 모관의 고유 의장이다.

기마인물상 모관엔 밑단과 달개가 표현됐다. 금제 모관 중 밑단은 황남대총 남분 것엔 없고 금관총-천마총 물품부터 사용된다. 기마상 모관 밑단 아래 착용용 끈이 표현됐는데 금제 모관 밑단엔 끈이 관통된 구멍이 뚫려있다. 금령총 기마인물상 모관은 신라 금제 모관, 특히 금관총-천마총 금제 모관 의장이 충실히 반영된 물품으로 정리된다.

---

4) 모관은 백화수피 2겹을 겹쳐 만들지만 해당 유물은 백화수피 단겹으로 제작됐다.

## 5. 관식 그림 2

금동제 접형 관식과 우모형 관식이다.<sup>5)</sup> 접형 관식은 잔편으로 보아 2종 이상이 짐작된다. 접형 관식①은 금실 하나로 달개 여러 점을 연결하며, 관식②는 달개 1점씩 금실로 엮었다. 관식①의 금실 연결법은 황남대총 남분·천마총 금제 관식에서 관찰된다. 현존 접형 관식은 천마총과 금령총 기간에 주로 관찰되며 대구 달성 의성 탑리, 강릉 초당동 고분군 등 지역 고총 출토품 상황도 비슷하다.

우모형 관식은 신라 관과 고구려 관 사이 연계성을 보여주는 사례이다(咸舜燮 1995). 금관총과 대구 달성 37호 2곽에 우모형 관식 파편이 보고됐다. 2018년 금령총 재발굴에 수습된 금제 드리개는 우모형 관식의 깃털 모양 장식과 제작법이 유사해 보인다.

## 6. 귀걸이 그림 2

태환식과 세환식 귀걸이들로 주피장자 머리 부위(착장, 금관 대륜 아래), 주피장자 좌·우측(유력 순장인), 그 외 목곽 사방(동남-북서-남-서, 추정 순장인)에서 출토됐다.<sup>6)</sup>

주피장자 착장품은 세환식 귀걸이며 수하부①·② 두 종이 달렸다. 수하부①은 원통형 계열 중간식의 발달형이며, 드림은 복엽식(주엽/자엽)이다. 수하부②는 소환연접구체/반구체 중간식에 구체간식이 발달했으며, 유력 순장자용 귀걸이와 유사하다. 수하부②는 경옥제 곡옥 드림이 사용이 특징적이다. 곡옥 드림은 경주 황오동 5호와 백제 무령왕 귀걸이 의장과 상통된다.

유력 순장자 태환식 귀걸이(순번2·3)는 서로 동일 형식이다. 소환연접구체/반구체-장신형 구체간식 중간식과 심엽형 드림(단엽식) 구성이며, 우측 순장자 귀걸이(순번3)는 드림 테두리에 각목문대가 부착됐다. 금관총-천마총 단계 발달형 태환식 귀걸이 장식을 충실히 따랐다.

목곽 주위(①동남쪽, ②북서쪽, ③축금구(상부), ④남쪽, ⑤서쪽) 귀걸이는 순장자

5) 1932년 보고서에 金銅冠帽飾金具으로 기술됨.

6) 금령총 순장을 8명으로 파악한 연구 사례가 있다(최종규 2014:240).

[표 1] 금령총 귀걸이 출토 양상

순번	명칭	출토위치	수량	특징	피장자 성격
1	세환이식	망자 두부	1쌍(2점)	주환—유환—원통형 —심엽형 드림(주엽/자엽—외연 각목문대)  주환—유환—소환연접구체/반구체 —곡옥형 드림(금제모자)	주피장자
2	태환이식	망자右(남쪽)	1쌍(2점)	주환—유환—소환연접구체/반구체 —심엽형 드림(중심각목문대)	
3	태환이식	망자左(북쪽)	1쌍(2점)	주환—유환—소환연접구체/반구체 —심엽형 드림(외연—중심각목문대)	순장자 (유력)
4	태환식 주환	목곽 동남쪽	1쌍(2점)	주환—유환 부착	
5	태환식 주환	목곽 북서쪽	1쌍(2점)	주환—유환 부착	순장자 (축정)
6	태환식 주환	죽금구 부근	1점	주환—유환 부착	
7	세환식 주환	목곽 남쪽	1쌍(2점)	세환 단독	
8	세환이식	목곽 서쪽	1쌍(2점)	주환—원통형—드림(꼬임식 금판 다발/總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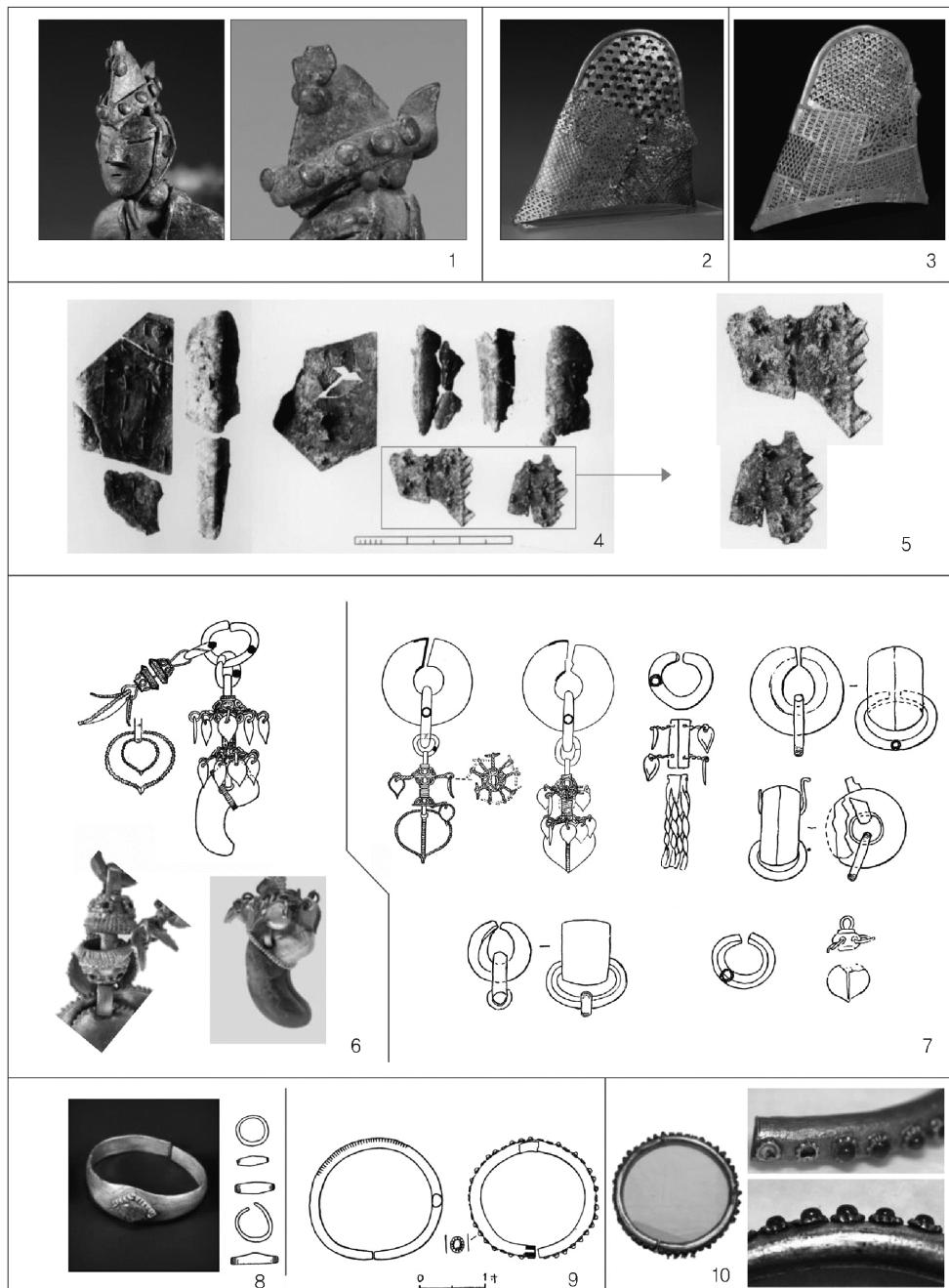
유품으로 추측된다. 이들은 주피장자/유력 순장자 귀걸이보다 완성도가 낮은 주환 단독 형식들이다. 그중 목곽 서쪽 출토 귀걸이(순번8)는 원통형 중간식 계열의 단순 변형품이다. 특징되게 금판 여러 가닥을 비벼서 드림을 만들었는데 닳은 예로 황오동 4호 드리개가 있다.

## 7. 팔찌 그림 2

금제 4점, 은제 4점, 유리제 팔찌 3점이 출토됐다. 1932년 발굴보고서에는 팔 위쪽에서 은제 → 금제 → 유리제 팔찌 순서의 착장법이 기술돼 있다. 금제 팔찌는 청색 유리-세선 각문대 돌기가 촘촘히 장식됐으며, 은제 팔찌는 각목문만 간소하게 표현됐다. 신라 귀금속 팔찌 제작법은 中實 → 中空形, 장식법은 無紋 → 刻目紋 시문 또는 돌기 부착식으로 발달한다(李漢祥 2011). 금령총 팔찌는 장식이 더 발달해 세선 각 목 돌기에 청색 유리가 추가됐다. 감옥/금세선의 複合 裝飾은 금령총 여러 장신구에 반복 등장하는 기술 중 하나다.

## 8. 반지 그림 2

반지는 주피장자 착장품 17점(금제 6점, 은제 11점)이며 금제 반지는 양손 각 3점



[그림 2] 금령총 출토 기마형토기 모관, 접형관식, 귀걸이, 반지, 필찌

(1. 기마형토기 모관, 2. 금관총 금제모관, 3. 천마총 금제모관, 4. 금동제 접형 관식, 5. 우모형 관식 파편,  
6. 세환 귀걸이/주피장자, 7. 순장자 귀걸이류, 8. 금제 반지, 9. 은제필찌, 10. 금제필찌/감옥세선장식)

씩 착장됐다. 그 외 주곽 서남 모서리에 은제 반지 5점이 더 출토됐다. 금제 반지는 마름모꼴 금제 각목 세선문에 청색 유리(혹은 보석)이 감옥됐다. 금제 팔찌 장식기법과 동일한 복합 장식법이다.

## 9. 허리띠

금령총에는 금제 투조 삼엽문식 허리띠, 은제 투조 삼엽문식 허리띠 그리고 은제 및 금동제 역심엽형 과판이 출토됐다.

### 1) 금제 허리띠 그림 3

금제 허리띠는 주피장자 허리춤 착장품이며 교구(1점), 과판(23점), 대단금구(1점), 요쾌(13점)로 구성됐다. 교구는 역D자형 계열이며 과판 연결용 침(針)은 달려있지 않다. 교구 연금에 침을 끼울 자리가 아예 없어 제작 당시 교구/과판 연결을 의도하지 않고 교침 제작을 생략한 것으로 보인다.

과판 문양: 과판은 신라 고유 양식인 투조식 삼엽문 계열에서 변형된 문양이다. 띠판과 드림 엽문이 몸체에 붙어 투공식(透孔式)으로 변형됐다(이한상 2004). 삼엽문 과판은 황남대총 남분 단계 표준화되며(국립중앙박물관 2010:146)<sup>7)</sup> 이후 금관총-서봉총 계열(②곡선형 삼엽문 과판)과 금령총 계열(③투공식 삼엽문 과판)으로 분화된다. 황남대총 남분 과판 계열은 북분-천마총으로 이어진다(①투조식 삼엽문 과판). 금령총 금제 허리띠 과판은 신라 허리띠가 표준화 달성과 함께 세 갈래로 분화·지속된 과정을 보여주는 주요 사례이다.

투공식 삼엽문 과판은 금관총(銀製), 황남동 95-6번지 2호(銀製), 황남동 95-4번지 고분 출토품(銀製)에서 이행 과정이 발견된다. 세 은제 허리띠는 투조식 삼엽문 과판과 투공식 엽문 드림이 함께 쓰인 중간 모델이다. 지역 고총 허리띠 중 금령총 연대보다 앞선 경산 임당 2호 북주곽 투공식 삼엽문 과판(銀製) 존재로 보아, 경주 중심

7) 신라 과판의 주력 문양인 투조식 삼엽문은 황오리 14호 1곽에 등장하며 신라 표준형의 정착은 황남대총 남분 시점에 들어서다. 황남대총 남분 망자 착장품은 표준형 과판이다. 부장궤엔 그보다 앞선 형식인 無垂下部式 삼엽문 과판, 용문 과판 여려 종이 복수 부장돼 있다. 투조 삼엽문 과판의 표준화 직전과 시작이 황남대총 남분 복수 허리띠에 나타난다.

권 투공식 과판 출현 시점은 금령총 물품보다 상향 조정될 것이다.

과판의 눈속임(그림4): 금령총 과판은 상당히 독특하게 제작됐다. 과판에 소형 못을 끼워 놓은 듯 보이나 실제론 원문을 돋을새김(打出)하였다.<sup>8)</sup> 신라 과판은 소형 못 9점을 끼워 띠(帶)에 부착한다. 못(圓頭釘)은 과판 상단3-중간3-하단3점씩 사용되는게 일반적이다.

그런데 금령총 과판은 상단 못1, 중간 못3점을 생략하고 대신 과판 뒷면에서 원문을 타출하여 외관상으론 못머리(釘頭)처럼 보이게끔 했다. 과판에 남은 못(상단 2-하단 3곳)은 과판과 띠를 부착하기 위한 최소한의 못이다.

과판 23점 모두 공통되므로 장인의 단순 실수가 아닌 계획된 기술 행위이다. 금령총 금허리띠 장인은 과판 못 수량을 줄이기 위해 못을 가장한 의도적인 눈속임을 구사했다.<sup>9)</sup> 못에 소비되는 금 재료를 절약하고 못 제작 공정을 생략해 제작 기간을 단축하기 위함으로 예측된다.

과판의 달개(그림4): 금령총 과판 전부에 원형 달개(瓔珞)가 부착됐다. 달개는 과판의 중심과 좌측 선상에만 위치하는데, 과판이 서로 겹쳐질 때 상대 과판 달개를 부수지 않기 위한 장인의 계획이다. 달개로 보아 금령총 금제 허리띠부장 방식은 과판을 겹겹이 포개 안치한 것으로 예측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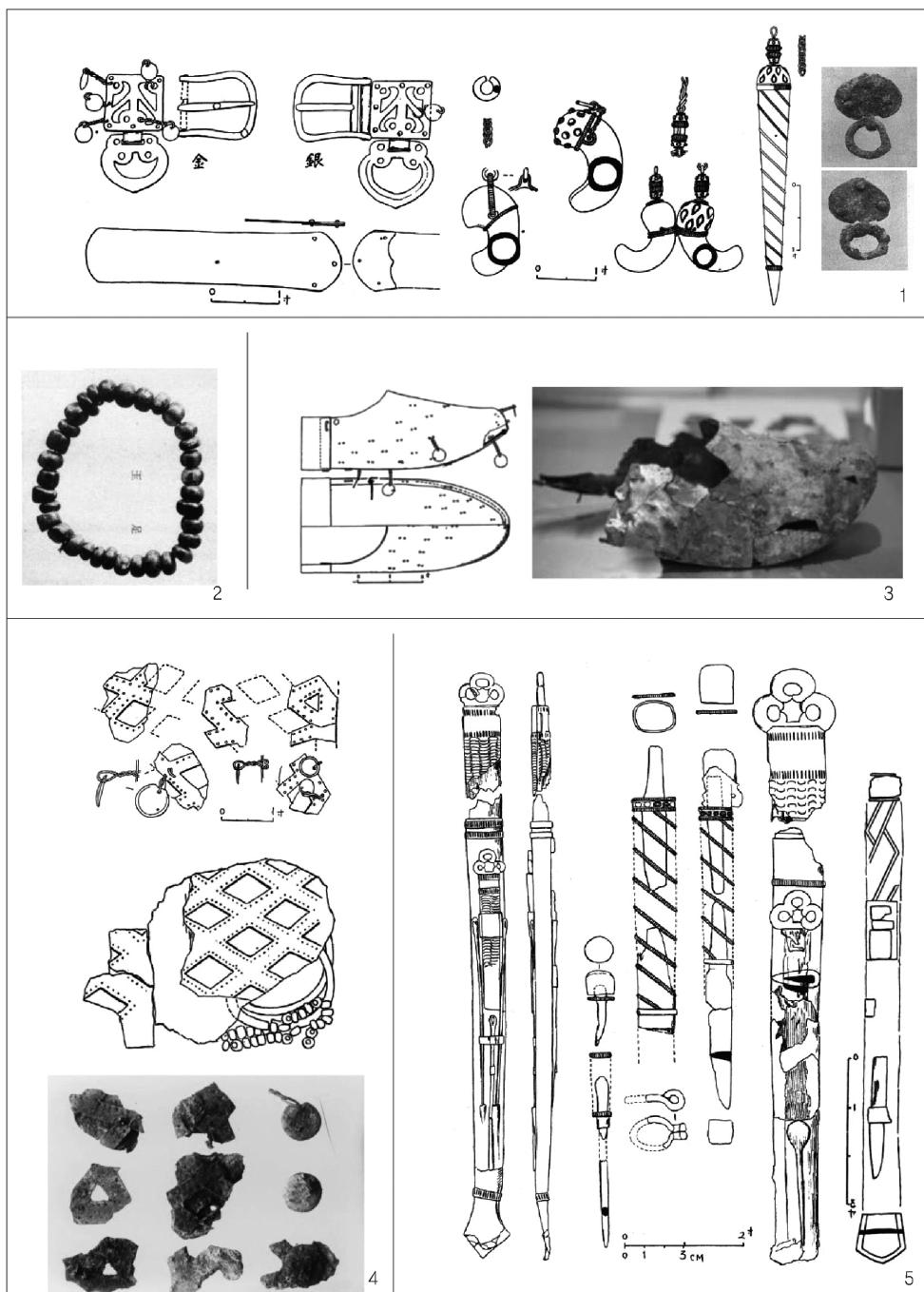
요폐 장식류(그림3): 금령총 요폐는 대형 1점, 소형 6점, 연필형 장식 2점, 곡옥 장식 4점 구성이다. 대형 요폐는 타원판 부품을 사용하며, 달개가 촘촘히 달린 천마총 금제 허리띠와 유사하다.

1932년 보고서로 금허리띠 착장상을 파악하면, 교구를 시작으로 ①소형요폐 → ②대형 요폐 → ③수정제 금모 곡옥/④금제 연필형 장식 → ⑤경옥제 금모(감옥) 곡옥 → ⑥소형 요폐 → ⑦쌍동형 수정제 금모 곡옥을 끝으로 마감된다.

특기할 점은 주피장자 등쪽(背面) 과판엔 요폐가 달리지 않는 사실이다. 요폐 일체는 주피장자 앞쪽(腹部)에 집중돼 있는데, 널에 누운 주피장자 시신이 외부인 시선에 노출되는 방향이기도 하다. 주피장자 신체의 노출된 부분을 한층 더 과시하기 위

8) 손민혁(2021)은 원두정 타출식 과판으로 설명하고 있다.

9) 이를 봤으면 의사 타출식 경문 기법(擬似 打出式 釘文 技法) 정도일 것이다.



[그림 3] 금령총 출토 금속제 허리띠, 발찌, 금동신, 이불장식, 장식대도/도자류

(1. 금/은제 허리띠 및 요파, 2. 발찌, 3. 금동신발, 4. 금동제 이불장식, 5. 장식대도/도자류)

한 용도가 허리띠와 요폐의 또 다른 역할임이 예측된다.

연필형 요폐는 유기질 몸체에 각목문 금실을 나선식으로 감고 머리에 청색 감옥/금세선 반구체 장식을 올렸다(複合技法). 금령총 머리맡 부장궤에 나온 금제 장식도 자와 장식법이 상통된다. 연필형 요폐는 서봉총, 인왕동 C3호, 경산 조영동 EⅡ-3호 등에서 일부 구성품이 찾아진다.

금모 곡옥 요폐는 황남대총 남분 시기부터 사용된 금허리띠 주요 구성품이다. 황남대총 북분, 금관총, 서봉총엔 금제 곡옥이 달리는데 금령총 요폐엔 특히 보석류(경옥, 수정) 비중이 높다. 곡옥 금모엔 반지, 팔찌, 연필형 요폐에 보이는 감옥/금세선 복합 장식이 사용됐다. 쌍동형 수정제 곡옥 요폐는 신라 금허리띠 중 금령총이 유일 사례이기도 하다.<sup>10)</sup>

금령총 요폐의 부재품(不在品): 금령총 금허리띠 요폐에는 공구형 요폐(도자, 끌, 귀얄)와 신수형 요폐(용, 물고기)가 부착되지 않았다. 신라 금허리띠 6종 가운데 금령총에서만 보이는 현상이다. 직능과 의기 관련 상징성이 높은 요폐 부속물이 사용되지 않은 점은 주피장자 죽음의 특수한 상황이 반영된 것으로 짐작된다.

## 2) 그 외 허리띠 장식 그림 3

은제 투공식 삼엽문 과판이 요폐 과편과 함께 출토됐다. 문양은 금제 과판과 동일 하며 외면에 금동제 달개가 부착됐다. 역심엽형 과판은 금동제 2점과 은제품 수점이 덩어리 채 유존한다. 이들 허리띠는 망자 신변에서 일정히 벗어나 주피장자 머리맡 부장궤 속에 안치된 물품들이다.

## 10. 발찌 그림 3

금제 허리띠 대형 요폐 끝자락에 구슬 위주의 발찌가 출토됐다. 주피장자 발치 위치를 보여줘 망자 신체 범위를 계측할 수 있게 됐다. 발찌는 33~38개 유리구슬이 사용됐으며 경주권 고분 유물 중 발찌는 매우 드문 사례이기도 하다.

---

10) 쌍동형 곡옥 2점은 등을 맞대고 실로 연결돼 있다. 제작 당시부터 2점을 함께 사용하려는 의도성이 반영돼 있다.

## 11. 금동신발 그림 3

신라 표준형 금동 신발이다. 신발등(前板), 신뒤축(後板), 신바닥(底板) 세 부속 품을 좌우측에서 조립한 전통적인 신라 금동신 제작법을 보인다(복천박물관 2010). 1932년 보고서 금동신 실측도는 뒤판이 유달리 얕게 표현됐다. 실물 대조 결과 파손된 뒤판을 원형으로 오인 계측한 것이었다.<sup>11)</sup> 1932년의 오류가 현재에 바르게 수정된 셈이다.

금령총 금동신은 경산 임당 6A호 출토품과 유사하다. 투조 ‘凸’자문 장식이 생략되며 달개가 촘촘히 장식된 점이 공통된다. 늦은 시기 신라 금동신발 장식이 단순해진 결과이다.

신라 금동신은 뒤축이 평평한 직각 형태로 제작됐다. 그 이유는 금동신을 널 바닥에 쉽게 세워두기 위함이다. 이때 외부인 시선이 모아지는 지점이 금동신발 발등이다 (특히 신발 바깥의 양측면). 이곳에 금동 달개 장식이 집중된다. 요약하면 신라 금동신발은 ‘보여주기’에 구조와 장식이 최적화된 셈이다.

금령총 금동신은 머리맡 부장궤에서 출토됐다. 1924년 발굴자는 망자 발치가 아닌 금동신 부장처를 의아스럽게 여겼다. 실제로 금령총은 경주 금동신의 일반적 부장법을 따른 것이다. 경주 금동신발 부장처는 망자 머리맡 부장궤, 목곽 귀퉁이 혹은 석단 등이다. 연대가 빠른 황남대총 남분 금동신발이 머리맡 부장궤, 유명한 식리총 백제產 금동신발은 목곽 모서리 두 곳에 따로 떨어져 출토됐다(김재열 2010 · 2011). 망자 신변과 무관한 장소에 금동신을 부장하는 지극히 경주 고유의 장례 규범을 금령총은 준용했다.

## 12. 장식대도와 도자류 그림 3

금령총 장식 무기류는 대도, 도자류 주류며 그 외 장식무구는 부장되지 않았다. 주 피장자 착장품(왼쪽 허리춤)은 금동제 삼루식 환두 장식대도며, 동형(대 · 소형)이 머리맡 부장궤에 추가됐다. 신라 장식대도는 환두 외형으로 三葉文, 龍鳳文, 三累文이 대별되는데 그중 삼루식은 황남대총 남분과 천마총 주피장자 패용도이기도 하다

11) 금령총 금동신 실물을 계측한 결과 크기는 길이 21.5cm, 너비 9.5cm 정도이다.

(국립경주박물관 2001). 장식대도로 보면 금령총 망자는 황남대총-천마총 주인공과의 연계선상에 선 인물이다.

금령총 도자류는 칼자루가 원두형인 사례, 몸체가 송곳 모양인 사례가부장됐다. 칼집에 각문목 금선을 나선식으로 감거나, 감옥/각목문 금세선 복합문이 장식됐다. 앞서 살핀 허리띠 요폐, 반지, 팔찌 등과 상통된 장식 기법이 도자에서도 재확인된다.

[표 2] 금령총 출토 장식대도와 도자류

순번	유물 명칭(1932년 보고서 기술 명칭)	출토 위치 (망자 기준)	길 이	출 처 (1932년 보고서)
①	금동제 삼루대도(小形) 1점	삼환상형 금동제환두도(小形)	우측 허리(착 장) 1척3촌5푼/40cm	도판100(右) 도판102(右)
②	은장식 목제칼집 1점	은장목도	좌측 신변(비착장) 1척6촌/45cm	제52도
③	금동/은제 삼루대도 1점	삼반환식 금동 /은장대도(大形)	머리맡 부장궤	2척5촌/75cm
④	금동제 삼루대도(小形) 1점	금동제환두도(小形)	머리맡 부장궤	1척/30cm
⑤	금은제 원두도자 3점	금은장원두도자	머리맡 부장궤 2촌5푼/7.5cm 3촌5푼/10.5cm	도판101 도판102
⑥	금은제 원두추형품 2점	금은제 원두추형품	머리맡 부장궤 3촌/9cm	도판103의2
⑦	금/은제 장식도자 9점	금은장 도자	머리맡 부장궤 -	도판104의1 도판105의1

### 13. 이불(衾) 장식 그림 3

주피장자 신체를 덮은 이불을 꾸민 장식이다.<sup>12)</sup> 파편만 남았지만 보고서 출토 정황은 꽤 자세하다. ①금관과 금허리띠 장신구가 있는 전면에 분포, ②금허리띠와 왼쪽 팔찌를 피복, ③얇은 가죽 혹은 비단 유기질에 금동으로 박에 가까운 것을 써운 것으로 설명됐다(경주시 신라문화유산연구원 2018).

의미를 해석하면, ①장신구가 있는 전면은 주피장자 신체 전범위, ②피복은 금허리띠와 금/은제 팔찌 위에 금동투조능형문이 출토됨을 의미한다. 따라서 부장 순서는 허리띠/반지 → 금동제 능형문 차례이며 망자 안치 후 이불 장식을 덮었음을 말해 준다. ③은 금동능형문이 유기질에 부착된 장식물임을 보여준다. 1932년 보고서는 주피장자 의류가 아닌 몸을 덮은 寢具로 결론지었으며, 지난 2014년엔 이불(衾)로 그 존재가 논증됐다(崔鐘圭 2014:245).

12) 1932년 보고서의 금동투조능형문 금구와 백운모 파편으로 기술됐다.

이불 장식 실물의 유존 사례는 경주가 아닌 지역 고총에서 찾아진다. 경산 조영동 EII-1호 은제 십자형 금구이다. 출토량이 무려 223점에 달하는 은제 금구가 주파장자 은제 허리띠와 장식대도(망자 허리~다리 범위)에 올려진 상태로 출토됐다. 유물부장 순서는 금령총과 동일한 주파장자 착장 장신구(은허리띠/장식대도) → 은제 금구이다. 은빛 십자금구가 촘촘히 수놓아진 이불이 망자 허리춤 아래를 덮고 있음을 보여준다(嶺南大學校 2015).

### Ⅲ. 금령총 장신구 이용의 세 참여자 (亡人 · 葬禮人 · 巨匠)

무덤과 장례의 세 주체는 亡人, 葬禮人, 匠人이다. 망인은 이 여정의 출발점이다. 이후 무덤 조영과 장례를 시작하고 종결짓는 실질적 실천자는 장례 주관자이다. 여기에 소비되는 막대한 물품은 장인의 몫이다. 삼자 중 하나가 제 역할에 소홀해도 죽음의례는 완결되기 어렵다. 금령총 장신구를 이용해 무덤과 장례 행위에 참여한 세 주체에 접근해보도록 한다.

#### 1. 금령총의 망인

1932년 보고서는 금령총 망인을 ‘신라 어린 왕자’로 판단했다. 여기엔 망자를 남성으로 본 성별, 미성인이라는 연령, 왕급의 지위 문제가 내재해 있다. 이하에서 각각을 짚어 보도록 한다.

##### 1) 성별: 남성

형질인류학 증거가 없는 상황에 고분 피장자 성별 판별법은 귀걸이 종류, 대도 착장 방식, 공반 유물상 분석이다. 전통적 신라 고고학 시각에선 세환 귀걸이-대도 착장군은 남성, 태환 귀걸이 착장군은 여성으로 인지해 왔으며(崔秉鉉 1992, 金龍星 1997, 李熙濬 2002), 최근 팔찌 착장상이 새롭게 제안됐다(하대룡 2019 · 2020).

금령총 망인은 머리에 세환식 귀걸이, 좌측 허리춤에 장식대도를 착장했다. 부장품에 철촉과 성시구 파편 같은 제한적인 무구류도 확인된다. 금령총 망인 성별을 남성으로 판단하기 무리 없는 정황들이다.

[표 3] 1932년 보고서의 금령총 망인에 관한 기술

- ① 허리춤 소환두대도는 그가 남자였다는 증거...피장자는 금은재보가 풍부했던 고신라의 왕자에 비정...(번역 99쪽)
- ② 관두에서 족옥까지 간격은 3척을 넘지 않는다...이 착장자를 성인라고 판단할 수 없음을 분명히 보여주는 것...당연히 신장이 작은 청소년이라는 추정에 도달...(번역 99쪽)
- ③ 금관 환대는 폭9푼, 직경5촌4푼 내외인데, 그 크기로 보아 피장자가 연소자라고 보는(번역 110쪽)
- ④ 반지 1점은 직경이 4푼 6리인 작은 것으로, 이것을 끈 피장자가 소년임을 시사한다.(번역 121쪽)

번역: 정인성 · 김은경(2018)

## 2) 연령대: 유아기

1932년 보고서는 금령총 망인을 靑少年, 少年, 年少者로 표현했다. 근거는 ①금관, 금허리띠, 팔찌 크기가 성인 체격보다 작은 소형인 점, ②금관-금허리띠-팔찌 출토 범위 역시 3척 내외(90cm 내외)에 불과한 이유 때문이다. 아래에서 하나씩 따져보자.

현재 시각에서 금령총 금관이 단순히 작다고만 할 순 없다. 아래 표처럼 금령총 금관은 황남대총 북분 금관과 크기가 비슷하다.<sup>13)</sup> 금관이 소형인 이유만으로 피장자 연령을 낮춘다면, 황남대총 북분, 금관총 금관 소유자 역시 성인으로 보기 어렵단 문제가 생긴다.

대륜 지름이 반드시 사용자 머리둘레와 일치할지는 의문이다. 대관 착용 방법이 대륜 양끝 구멍(체결용 투공)을 유기물로 뚫는 방식이었고 그래서 대륜 길이가 유동적으로 조절 가능했다면(咸舜燮 2012:28), 더더욱 대관의 대륜과 두위(頭圍)가 비슷했을 가능성은 낮아진다.

지금의 신라 금관 연구 수준에서 따져야 할 대목은 금령총 금관 크기 변화의 갑작스러운 역행이다. 신라 금관 발굴이 축적되며 금관 크기의 변화 경향이 밝혀졌다. 황남대총 북분 금관(높이 27.3cm) → 금관총 금관(同 27.5cm) → 서봉총 금관(同 30.7

13) 황남대총 북분 · 금관총 · 서봉총 · 천마총 금관 제원은 해당 보고서를 참고, 교동 · 금령총 금관은 경주박물관 (2015)과 국립중앙박물관 e뮤지움 자료를 참고함.

cm) → 천마총 금관(同 32.5cm) 순으로 금관은 점차 高大化 된다(咸舜燮 2012). 그런데 금령총 금관 크기는 금관 최장신화가 달성된 천마총 시점 돌연 외형이 축약돼버린다. 30cm 높이를 넘나드는 당시 유행과 반대되게 금령총 금관은 27cm로 줄어든다.

이 같은 역행 현상은 금령총 금허리띠에도 찾아진다.<sup>14)</sup> 금령총 금허리띠는 과판 수량과 길이가 줄어든 소형이다(과판 23점/길이 74cm). 동시기 천마총 금허리띠 크기(과판 44점/길이 125cm)가 극대화되는 점과 뚜렷이 대비된다. 동시에 신라 금허리띠 중 가장 소형이기도 하다.

결국 금령총 금관과 금허리띠는 신라 장신구 대형화 추세에 역행하는 돌발적 물품이다. 특별한 물건에 특별한 사유가 있기 마련이다. 일반적이지 않은 죽음의 원인, 그것이 금령총 금관과 금허리띠를 소형품으로 제작하게 한 동인이다.

다음 금관-금허리띠-발찌 출토 범위로 추정한 망자의 신체 크기다. 금관-금허리띠 간격 1척(30.3cm), 금허리띠-발찌 간격 1척(30.3cm) 그리고 금관 높이(27cm)이다. 셋의 범위, 장신구가 신체 부위에 대응됨을 전제로 하면 망자 신체 크기는 80cm~100cm 내외로 추정된다.

[표 4] 신라 금관 재원

	경주 교동	황남대총 북분	금관총	서봉총	천마총	금령총
대륜 둘레(cm)	44.9	53.5	56.5	58.1	64.0	53
대륜 자름(cm)	14.3	17	19.0	18.2	20.0	17.0
높이(cm)	12.8	27.3	27.5	30.7	32.5	27.0
중량(g)	50.4	1,062	692.0	803.3	1,262.6	356.4
금은 합금비	Au89.2 Ag10.9	Au86.2 Ag12.3	Au85.4 Ag13.4	Au80.3 Ag18.8	Au83.5 Ag16.3	Au82.8 Ag16.6
순도	21.4K	20.7K	20.5K	19.3K	20.0K	19.9K

[표 5] 금제 허리띠 재원

	황남대총 남분	황남대총 북분	금관총	서봉총	천마총	금령총
둘레 길이(cm)	90.0	120.0	109.0	120	125.0	74.1
과판 수량	34	28	40	34	44	23
교구 수량	2	1	1	1	1	1
요파	7	13	17	8	13	13
중량(g)	1,120.0	919.0	1,181.7	782.7	1,382.3	미공개

14) 금허리띠 재원은 국립대구박물관(2021)을 참고함.

2001년 경기도 양주에서 17세기 중엽 미라 1구가 발굴됐다(단국대학교 2002). 법 의학 계측 결과 미라 신장은 99.4cm, 치아 상태로 측정된 연령대는 5.5세 전후다(한 승호 2002, 김종열 2002). 17세기 男兒 미라와 5~6세기 고분 자료를 직결하긴 무리이다. 그러나 미라 신장과 금령총 착장 장신구 출토 범위가 비슷한 점은 의미를 둘 수 있다. 현대 한국 의학계 소아 표준 성장률에서는 4~6세 신장을 103~109cm로 설정하고 있다.

주인공 신체를 크게 과장하려는 고대인의 경향을 감안하면 금령총 망자의 신체는 장신구 출토 범위보다 더 작았을 수 있다. 금령총 장신구 여러 정황은 금령총 망인이 넉넉잡아 유아기 생을 마감한 인물<sup>15)</sup>이 유력함을 보여준다.<sup>16)</sup>

### 3) 지위의 수준과 성격: 귀속 지위를 부여받은 신라 최상위 구성원

장신구로 보는 한 금령총 망인의 지위는 신라 마립간기 최상위층 일원이다. 착장 유물 정형으로 본 신라 고분 피장자 지위군은 상-중-하위군으로 나뉘며 최정상은 금 관-금허리띠를 필두로 귀금속 장신구 전종 보유 인물군이다(李熙濬 2002). 최상층 그룹에 금령총 망인 역시 포함된다.

1932년 보고서는 금령총 망인을 王子로 표현했다. 금령총 망인을 특정 왕의 자손으로 지목할 확증 자료는 발견되지 않고 있다. 지위와 관련지어 금령총 망자를 표현한다면, 그는 신라 마립간기 최상위 인물로서 마립간 혹은 마립간위 배출 집단의 주요 구성원이란 표현이 한층 고고학적이다.

다음 금령총 망인이 지닌 지위의 성격 문제다. 지위는 어떤 방식으로 계승·쟁취 하느냐로 생득 지위와 획득 지위로 구분된다(혹은 귀속 지위와 성취 지위). 생득 지위는 출생과 함께 귀속 세습되며, 획득 지위는 개인적 성취로 얻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마이크 파커 피어슨·이희준 2009:139). 금령총 망인은 유아가 유력하기에 그에게 투영된 지위는 그 자신 스스로 획득한 지위일 가능성이 낮다. 금령총 망인의 지위는 출생과 함께 주어진 귀속 지위이며, 장례를 주관한 인물로부터 최종 증여받은 성격의 지위이다.

15) 유아의 사전적 의미인 ①생후 1년부터 만 6세까지의 어린아이, ②나이가 적은 아이로 표기한 국립국어원 표준 국어대사전을 따랐다.

16) 참고로 망인 양측 순장자 2인(태환이식 착장자)을 育兒로 본 견해가 있다. 그렇다면 금령총은 유이기 망자. 그보다 어린 영아 순장자로 구성된 무덤인 셈이다(최종규 2014:240).

#### 4) 일부 장신구의 不在와 지위 획득의 제한

유아기 생을 마감한 금령총 망인의 짧은 생애는 생전 지위 획득 기회가 적었음을 의미한다. 망인의 특수한 상황은 어떤 식으로든 유물 부장에 반영되기 마련이다. 마립간위 승계와 같은 일생 기념될 성공적인 사건은 물론, 갑작스레 닥친 어린 죽음과 같은 죄악의 상황도 말이다. 망인의 짧은 생애를 어떻게 유물에서 읽어낼 수 있을까.

금관을 보유한 수준임에도 금령총 장신구엔 여타 금관 출토 고분의 장신구 부장 상에 없는 약소함이 있다. ①금령총엔 금동제 대관(이하 금동관)이 부장되지 않았다. ②신라 금허리띠 중 유일하게 공구형·신수형 요폐 장식이 생략됐다. ③무엇보다 금령총 주파장자 장신구는 단수 부장이 주류다. 즉 금령총 장신구엔 존재하지 않는 것(不在品)의 비중이 높다.

다른 금관 출토 고분을 살펴보자. 황남대총 남분/북분, 금관총, 천마총, 서봉총엔 금동관 2~6점, 은제 삼엽문 허리띠 2~6종, 금동신 2종 이상씩 복수 부장됐다. 금제 허리띠 요폐엔 용/물고기, 職能을 상징하는 손칼/착/귀얄을 본뜬 장식물이 사용됐다. 그러나 금령총 장신구엔 이와 같은 것이 전혀 사용되지 않았다.

장신구는 망자 생전의 이력을 반영한다. 따라서 동일 종류 장신구의 복수 부장은 소유자가 여러 차례 지위 획득에 성공했으며 그만큼 기회 획득의 기간인 삶의 시간(生涯)이 꽤 길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금령총 장신구 양상은 전혀 다르다. 금령총 장신구는 단품 비중이 높다. 금관은 있으나 금동관은 없으며, 모관은 해당초 부장되지 않았을 수 있다(이 글 모관 설명 참고). 귀걸이 역시 둘이 아닌 한 쌍만 착장됐다.

장신구 여러 별은 장신구 획득 횟수와 그 기간을 의미하므로 금령총의 단품 장신구는 망인의 지위 획득 기회와 기간이 단시간이었음으로 해석된다. 요약하면 금령총 망인의 유아기 마감된 짧은 생애는 지위 획득 기회의 단축을 의미하며 이는 금령총 유품의 금동관 부재, 금허리띠 요폐 일부 생략, 귀걸이 단품 부장으로 나타났다.

## 2. 금령총의 장례 주관자

망자 죽음 후 장례 행위는 장례 주관자에 의해 실행된다. 장례자 역할은 망자의 신체 처리(殮襲), 장지 선정과 무덤 축조, 조문객 대접 등 다양했다. 무엇보다 장례에 소비되는 막대한 장례 물품을 준비해야 한다. 그런 점에서 장례 전용품 장신구의 도출

은 제의품을 정성스레 준비한 인물 곧 장례 주관자의 존재를 밝히는 첫걸음이다.

장례 전용품으로서 장신구의 특징은 ①기능성보다 과시성 중시, ②특정 시점에 제작된 동시성, ③唯一無二한 물품의 단독성으로 설명된다. 이하에서 금령총의 장례 전용 장신구를 살펴본다.

### 1) 과시 목적의 금동신발, 금허리띠 그림 4

장례 사용의 단일 목적 물품은 기능성 · 내구성보단 ‘보여주기’ 위한 시각과 과시 기능이 우선시 된다. 금동신발은 약한 내구성으로 착용과 보행이 불가능해 여러 연구자에 의해 장송 전용품으로 논증됐다(이한상 2010, 김재열 2011). 死者 빌에 신겨 세우기 편리한 신라 금동신의 직각형 뒤축, 외관상 드러난 신등 바깥과 신바닥에 집중된 달개 장식은 금동신의 시각적 과시에 최적화된 구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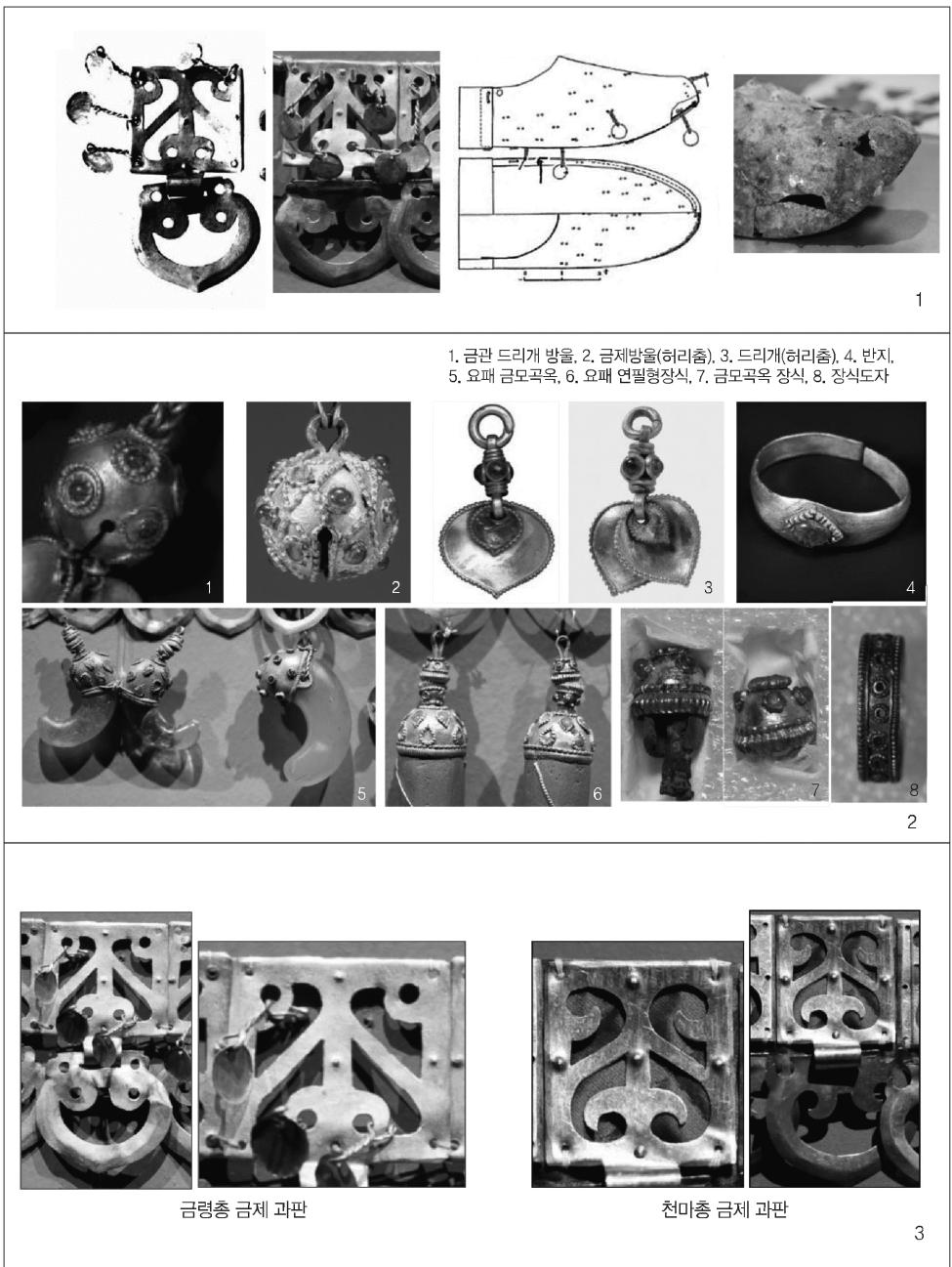
금허리띠 역시 장례 전용품으로 여겨진다. 금령총 금허리띠 과관과 대형 요폐엔 금제 달개가 촘촘히 부착됐다. 금허리띠 달개 장식은 황남대총 북분-금관총-서봉총-천마총 금허리띠에 사용됐다. 금허리띠 착용 시 의복과 옷 주름의 간섭을 생각하면 허리띠 금제 달개는 실용 목적의 장식물로 보기 어렵다. 달개의 부착 부위도 고려해야 한다. 달개는 금허리띠 앞쪽 과관줄(망자 복부쪽)과 대형 요폐에 주로 달렸는데 외부인이 망자를 바라볼 때 허리띠의 시선이 집중되는 곳이다.<sup>17)</sup>

### 2) 감옥/금세선 장식의 동시성 그림 4

장례 물품은 죽음 발생 즈음 제작된다. 장례란 특정 기간에 제작 완성된 물품이므로 비슷한 장식 혹은 유사 기술이 사용됐을 가능성성이 높다. 금령총 여러 장신구에는 복합 장식(유리 감옥/금제 세선문)이 반복 등장한다. 금관 드리개, 반지, 팔찌, 허리띠 요폐의 연필형 장식과 금모 꼭옥, 금은장제 도자에 감옥/금세선 복합 장식이 구사됐다.

감옥과 금세선을 함께 다룬 이중 장식은 월성로 가13호, 황남대총 남분 물품에 한시적으로 등장한다. 신라 장신구 기술사 관점에서 희귀 자원 두 종류를 동시 사용한 제작법은 4세기 후반 등장해 간헐적으로 사용된 셈이다. 주목할 점은 금령총 유물에 선 ‘감옥/금세선’ 복합 장식이 여러 종류 장신구에 공통 사용된 사실이다. 단일 고분

17) 과관 연결을 계획하지 않은 금허리띠 교구 제작법(교침 생략), 과관을 촘촘히 겹쳐 안치한 부장법도 일상 기능성과 무관한 요소들이다.



[그림 4] 금령총 금제 과판과 금동신 달개 장식, 금령총 감옥세선 장식, 금허리띠 과판의 눈속임/의사 타출 정문  
(1. 금제허리띠 및 금동신발의 달개장식, 2. 감옥금세선 장식, 3. 금허리띠 과판의 눈속임/의사 타출 정문(擬似 打出 釘文))

에 동일 장식법이 반복 사용된 비중은 금령총 장신구가 단연 높다.

이 금령총 장신구들의 특별한 장식법의 반복 등장은 특정 기간에 한정 제작된 동시기성으로 해석될 것이다. 망자 죽음에 임박한 시점 혹은 죽음 발생 직후의 장례 기간에 특정 기술을 공유한 장인 집단에 의해 집중 제작된 것이다.

### 3) 금관과 금허리띠의 단독성

금관 용도를 특별한 일상품과 장례품으로 본 견해는 일찍 논의됐다(이한상 2004, 咸舜燮 2012). 연장선상에서 금허리띠 용도도 다뤄졌다(김재열 2014, 손민혁 2021). 해답의 실마리는 금관과 금허리띠 정밀 관찰에서 찾게 될 것이다. 기술 관점에서 일상품이면 마모와 사용흔이 남을 것이며, 그 반대면 재단 후 다듬지 않은 거친 면이 보일 것이다.

이 단락에선 망인 생애와 관련지어 금관과 금허리띠가 장례 용품임을 설명해 본다. 인간의 일생은 출생에서 시작해 죽음으로 종결된다. 생애는 통과의례와 계승의 연속이다. 사회 구성원으로 인정받는 성년식을 시작으로 혼례, 상례, 제례 그리고 술한 지위 획득 과정이 일생 이어진다. 작은 무리의 우두머리일 수 있고 혹은 전대 마립간위를 계승한 인물이 될 수도 있다.

그 관점에서 귀금속 장신구는 생애 주요 지위 획득을 성공리에 마친 기념 물품으로 사용됐을 것이다.<sup>18)</sup> 황남대총 남분과 북분, 금관총에 여러 점 부장된 금동관, 은허리띠, 반지와 팔찌는 주인의 생애 여러 사건을 거치며 차례로 획득된 물품이다. 사회 구성원 누구나 통과의례를 겪으나 그 과정은 같지 않다. 신라 고분 피장자 장신구 조합 정형이 큰 단층은 구분되나 그 속 여러 조합은 개별성이 강한 이유다.<sup>19)</sup>

그러나 모든 인간에게 공통된 唯一無二한 사건은 죽음이다. 현존 신라 고분에 금관과 금허리띠가 둘 이상 부장된 예는 아직 없다. 금관과 금허리띠가 장신구 중 최상위 충차품임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런 貴品을 소유한 인물은 당시 신라 사회 위계 피라미드 구조 꼭대기층에 자리한 구성원임도 재론이 따르지 않는다.

그런 인물이 왜 금관, 금허리띠는 둘이 아닌 하나만을 보유한 것인가(單獨副葬).

18) 장신구의 기능과 역할은 위세품, 복식품, 장례품으로 다양하다. 여기에 생애 지위 획득의 기념품의 역할도 추가될 것이다.

19) 李熙俊(2002)이 고분 피장자 착장 유물과 복식군을 짜임새 있게 제시했다. 복식군은 상-중-하위로 구분되나 그 속엔 무려 12개군(A~L군)이 존재한다.

금관과 금허리띠는 그가 죽은 삶의 통과의례 어느 순간을 기념해 획득한 물품일 것일까. 신라 금관과 금허리띠가 단독 부장품인 이유는 생애 유일한 사건, 즉 죽음을 기리기 위해 준비된 물품이기 때문이라 생각된다.<sup>20)</sup> 금관, 금허리띠와의 공반 유물 상황도 금관과 금허리띠가 최후 시점, 즉 망자 죽음과 장례 근접 시점에 제작된 물품임을 짐작케 한다. 금관과 금허리띠는 다른 재질의 관, 허리띠와 공반 사례가 많다. 이 경우 금관과 금허리띠는 공반품과 형식학적 비교로도 후행 시기 물품의 비중이 높기 때문이다.(김재열 2014).

### 3. 장인

신라 장신구 생산체계는 상당 수준의 專門化를 달성했다. 경주 중심권 집단은 그들의 필요품을 충당하고 그 剰餘產品을 다시 신라 각 지역민에게 제공했기 때문이다. 신라 장신구의 광역 분포망 성립은 장신구 分與 · 分配 · 賦與 體系 작동의 성공적 결과이다(최종규 1983).

이 단원에서 그런 거대 담론보다 좀 더 실제적인 문제를 논하려 한다. 생산 활동의 수행자는 물건을 만든 인물, 곧 匠人이다. 백제는 거장 '多利'가 이름을 남겼으나<sup>21)</sup> 신라는 그렇지 않다. 신라 귀금속 장신구에 각자와 부호가 확인되지만, 장인 개인을 특정할 이름과 같은 실증적 단서를 발견하기 어렵다. 장신구 물품에 남은 기술 특징으로 신라 전문 장인을 유추해야 하는 상황이다.

금령총 금허리띠 과판 눈속임이 천마총 금허리띠에서도 발견돼 두 물품을 만든 장인의 높은 공통점을 제시할 수 있다.

#### 1) 금령총과 천마총 금 허리띠 장인의 유사성 그림 4

앞서 금령총 과판 특징으로 의사 타출 정문 기법을 언급했다. 과판 못을 생략하고 대신 못처럼 보이도록 가장한 장인의 독특한 눈속임이다. 천마총 금제 과판에도 동일 제작법이 발견된다. 과판 못을 대신한 타출 정문은 현존 신라 여섯 금허리띠 중 금령총, 천마총 둘만 공통된 특징이다. 기술 관점에서 금령총 · 천마총 금허리띠 유사도가

20) 만일 금관, 금허리띠가 마립간위를 계승한 기념물이라면 당장에 유아로 물한 금령총에 대치되곤 만다.

21) 무령왕비 은괄찌의 '庚子年二月多利作大夫人分二百口主耳' 내용을 따랐다.

매우 높은 것이다.

과관 못 제작 생략으로 얻게 될 이득은 자원 절약과 제작 시간 단축이다. 장인은 한정된 금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며 제작 공정을 단축해 정해진 장례 기간에 맞춰 물품을 완성할 의무가 있었고 그들 장인은 목적을 달성했다.

금령총·천마총 두 장인(혹은 집단)은 동질의 의무를 부여받았고, 그 목표 달성을 위해 유사한 제작 기술을 구사했다. 금령총과 천마총 금허리띠 장인은 속임수 같은 매우 민감한 정보를 공유할 만큼 밀접한 사회적 관계에 놓인 인물군이었다. 기술 정보가 원활히 통용될 만큼 가까운 거리의 공방 혹은 같은 공방을 사용한 장인들로 예측된다.<sup>22)</sup>

## 2) 전문장인의 존재

금허리띠 같은 고가치품을 만든 이들은 전문장인이었다. 특정 목적을 위한 물품을 주어진 기간에 완성하기 위해선 자원, 기술 그리고 물품 수요자와의 관계가 중요하다. 금령총 금허리띠 장인은 금자원 확보와 접근이 허락된 인물군이었다. 금허리띠 제작에 필요한 정보(문양 도안, 구성품의 종류)와 기술력, 도구가 상시 구비된 장인들이었다. 그를 위해선 자신들의 상당 시간을 물품 제작과 완성에 투입해야 한다. 장인 집단 자신을 위한 식량 생산 활동에 종사하기보다 특정 수요품 생산 조달에 주력하며, 식량 생계 문제는 물품 공급 대가로 주문자가 해결하는 구조였을 것이다.

그렇게 축적된 기술 숙련도와 정보는 다시 다음 세대 장인에게 학습 전수되어 유지 발달시켜 나아갔다. 즉 금령총 금제 장신구는 당대 전문장인의 존재를 보여준다. 금령총 장신구 장인은 갑작스레 발생한 장례에 필요한 물품을 안정되게 공급하며 그 과정 편법을 구사할 만큼 능수능란하기도 했다. 동시에 변칙이 용인될 정도로 장인과 물품 주문자는 상호 긴밀한 사회적 신뢰 관계를 유지했음이 예측된다.

## 4. 삼자의 관계와 마립간 시기의 신라 사회

금령총 장신구를 둘러싼 망인, 장례인, 장인이 활동한 마립간 시기 신라는 어떤 사회였을까

22) 금령총·천마총 금허리띠 장인 이외에 금관총 금관과 금허리띠 장인, 천마총 금제 모관과 관식 장인의 동일 집단(혹은 같은 공방 소속)임이 제안됐다(김재열 2022).

유아기 생을 마감한 금령총 망인에겐 생득 지위가 부여됐다. 출생으로 귀속되는 지위는 혈연 중심의 지위 세습으로 유지된 사회였다. 주문자 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특정 물품 생산에 주력하며 희귀 자원과 기술을 상시 확보한 전문장인들이 활동한 사회였다. 이 장인들은 상품 거래 위주의 경제 활동 종사자로 보긴 어렵다. 사회 상층부 소수 성원의 수요에 부합된 특별한 고등 가치품을 생산 공급하는 위세품 경제 환경 아래 활동한 장인들이었다. 금령총 장례 주관자는 수차례 장례를 치를 만큼의 副를 축적한 인물이었다. 그는 막대한 질량의 副를 先代는 물론 그의 子孫의 장례에 아낌없이 투입하고 소비했다.

망인, 장례인, 장인을 이어주는 매개체는 다름 아닌 무덤과 장례이다. 산자가 죽은 이를 위해 막대한 富를 무덤과 장례에 기꺼이 喜捨하는 사회였다. 세습 지위, 전문 장인, 장례 주관자 이 삼자의 존재는 당시 신라가 脱평등을 넘어섰으며, 사회적 副가 특정 인물과 관계 구성원에 편중돼 不平等 구조가 심화된 상황에 처해 있었음을 말해 준다. 소수 최상위 집단에 의해 점유된 사회적 富가 무덤 조영과 장례품 준비에 집중된 현상은 당시 신라 사회가 장례 행위를 法으로 규제하는 본격적 수준의 國家 진입을 목전에 두고 있음을 보여준다.<sup>23)</sup>

## IV. 맷음말

1924년 경주 능원 북단 끝자락 한 고분이 발굴됐고 1932년 발굴보고서가 간행됐다. 이 고분은 금제 방울 출토를 기념해 ‘금령총’으로 이름 붙여졌다. 2019년 재발굴이 이뤄졌고 2022년 그간 축적된 금령총 성과를 집성한 행사가 개최 중이다(특별전 ‘금령 어린 영혼의 길동무’).

지금 금령총 조명의 취지에 맞춰 이 글은 금령총 장신구를 소재로 삼고 ‘물건과 사람’을 주제로 다뤘다. 우선 현재 신라 고고학 관점에서 금령총 장신구 의의를 살폈다. 금령총 장신구는 양식, 기법, 제작 시기 여러 정황이 천마총 물품과 유사하다. 이 기간은 신라 귀금속 장신구 문화의 질적 양적 수준이 절정에 도달한 시기로 금령총 장

23) 현대 고고학은 사회 조직의 수준과 정도를 무리·부족·군장·초기국가·국가로 구분된다. 무덤과 장의를 축으로 망인, 장례인, 장인이 얹힌 현상은 신라 사회가 본격적 국가 진입 전의 과도기상을 보여주는 사례로 해석된다.

신구 역시 완숙기에 달한 신라 마립간 시기 금공품 수준을 보여준다. 금에 더해 유리를 조화시킨 감옥/금세선 복합 장식의 발현이 금령총 장신구 주요 특징 중 하나로 지목된다.

주제의 다른 한 축은 장신구 이용에 참여한 인물 탐색이다. 고고학은 인공물, 즉 유물을 다루기에 인간의 존재와 의중 접근이 가능하다. 금령총 장신구로 망인, 장례 주관자, 장인을 살필 수 있었다. 예기치 못한 죽음의 발생, 망인으로부터 무덤과 장례가 시작된다. 마립간기 신라 사회 최상위 구성원 일인이 유아기 짧은 생을 마감했다. 망인에겐 마립간 혹은 마립간위 배출 집단 구성원에 상응된 지위가 증여됐다. 망인과 친족 관계에 놓인 금령총 장례 주관자는 금관, 금허리띠 등 장례 물품을 준비토록 장인에게 지시했다. 장례 주관자는 장례 일체를 시작 진행하며 종결시킨, 이 모든 과정의 실질적 실천자이다. 능숙한 솜씨의 귀금속 장신구 장인은 장례 물품을 제작 현상 했다. 그는 특수한 장례도 대처 가능한 숙련된 기술력, 귀금속 자원의 접근권, 약간의 변칙은 용인되는 장례자와의 신뢰 관계를 맺은 인물이었다.

금령총의 물품(장신구)과 그를 통해 망인, 장례인, 장인을 조명하려 목표했으나 이 글에선 삼자의 단서를 밝히는 일차적 수준에 머물고 말았다. 죽음과 장례의 무대에서 물건으로 얹힌 삼자의 관계는 향후의 과제로 남긴다.

\* 본 고는 2022년 국립경주박물관 『신라능묘 특별전4 금령총 학술 콜로키움』 발표문을 수정한 것임 밝혀둔다.

투고일 2022. 12. 18 | 심사완료일 2023. 1. 20 | 게재확정일 2023. 1. 27

## 참고문헌

- 경주시 신라문화유산연구원. 2018. 「알제강점기 경주 대릉원지구 고적조사 보고서 번역」『경주 대릉원 고분자료집성 및 분포조사 종합보고서 제4-2권 자료집성Ⅲ』.
- 국립경주박물관, 2015. 『경주의 황금문화재』.
- \_\_\_\_\_. 2001, 『新羅黃金 신비한 황금의 나라』.
- \_\_\_\_\_. 2002, 『금령총 학술콜로키움 – 금령총 그 100년의 시간』.
- \_\_\_\_\_. 2022, 『신라능묘 특별전4 금령 어린 영혼의 길동무』.
- 국립대구박물관, 2021. 『한국의 허리띠 끈과띠』.
- 국립중앙박물관, 2010. 『황금의 나라 신라의 왕릉 황남대총』.
- 김용성. 1997. 『대구 경산지역 고총 고분의 연구』, 영남대학교대학원 문화인류학과 박사학위논문.
- 金載烈. 2010. 『新羅 飾履의 特徵과 副葬方式』, 『考古學探究』第8號. 考古學探究會.
- \_\_\_\_\_. 2011, 『신라 식리의 葬送儀禮的性格』, 『考古學探究』第9號, 考古學探究會.
- \_\_\_\_\_. 2014, 『삼국시대 경주지역 고분 출토 대금「」의 부·장양상 검토』, 『新羅史學報』32, 新羅史學會.
- \_\_\_\_\_. 2022, 『귀금속 장신구 기술의 고고학』, 『제46회 한국고고학전국대회 기술의 고고학』, 한국고고학회.
- \_\_\_\_\_. 2022a, 『금령총의 장신구 그리고 사람들–현재 관점의 장신구 검토 및 장신구 이용장 대한 접근』, 『신라능묘 특별전4 금령총 학술 콜로키움』, 국립경주박물관.
- \_\_\_\_\_. 2022b, 『특별전 컬럼 금령총 귀금속 장신구로 본 사람들: 망인, 장례인, 장인』, 『특별전 도록 금령, 어린 영혼의 길동무』.
- 김종열. 2002. 『치아에 의한 조선시대 소년 미라의 연령추정』, 『남아 미라 및 출토유물 연구논총』, 단국대학교 石宙善紀念博物館.
- 단국대학교 石宙善紀念博物館, 2002, 『남아 미라 및 출토유물 연구논총』.
- 박유림. 2018. 『新羅 古墳 出土 硬玉製 曲玉 研究』, 嶺南大學校 大學院 文化人類學科 碩士學位論文.
- 복천박물관, 2010, 『履 고대인의 신』.
- 손민혁. 2021, 『신라 금제 허리띠 연구』, 동국대학교대학원 고고미술사학과 석사학위논문.
- 신광철. 2021, 『재발굴을 통해 본 금령총의 구조와 성격』, 『한국학연구』77, 고려대학교 한국학연구소.
- 嶺南大學校, 2015, 『경산 임당지역 고분군 XII 造永EII-1號墳』.
- 李漢祥. 2000. 『新羅冠 研究를 위한 一試論』, 『考古學誌』12. 韓國考古美術研究所.
- \_\_\_\_\_. 2004, 『황금의 나라 신라』, 김영사.
- \_\_\_\_\_. 2010, 『금동식리로 본 삼국시대 장송의례의 한 단면』, 『新羅史學報』20, 新羅史學會.
- \_\_\_\_\_. 2011, 『東아시아 古代 金屬製 裝身具文化』, 도서출판 考古.
- 李熙濬. 2002, 『4~5세기 신라 고분 파장자와 服飾品 著裝 定型』, 『韓國考古學報』47輯, 韓國考古學會.
- 이희준 육김 마이크 파커 피어슨 지음, 2009, 『죽음의 고고학』, 사회평론.
- 정인성, 김은경(번역). 2018, 『다이쇼(大正) 13년도 고적조사보고 제1책 본문 경주 금령총 식리총 발굴조사보고』, 『경주 대릉원 고분자료집성 및 분포조사 종합보고서 제4-2권 자료집성Ⅲ』, 경주시 신라문화유산연구원.
- 장정남. 2020, 『3.임당1호분과 주변유구 출토유물』『사적 516호 임당동과 조영동 고분군 내 경산 임당1호분 고찰 및 부록』, 경산시 · 한빛문화재연구원.
- 朝鮮總督府, 1932, 『慶州 金鈴塚 飾履塚 發掘調查報告書』, 『大正十三年度古蹟調查報告 第一冊』.
- 崔秉鉉. 1992. 『新羅古墳研究』, 一志社.
- 崔秉鉉. 2009, 『금령총(慶州 金鈴塚)』, 『한국고고학 전문사전 고분편』, 국립문화재연구원 문화유산연구지식포털 홈페이지.

- 崔鐘圭, 1983, 「中期古墳의 性格에 대한 약간의 考察」,『釜大史學』第七輯, 釜山大學校史學會, 33~36쪽.
- \_\_\_\_\_, 2014, 「적석총의 封, 樺, 殤」,『鐵箱集 I』-葬送-, 도서출판 考古.
- 하대룡, 2019, 「적석목곽묘 과장자의 성별 재고-성별이형성을 기초로 한 천(釧)의 계측적 분석을 중심으로」,『韓國考古學報 第111輯』, 韓國考古學會.
- \_\_\_\_\_, 2020, 「신라 고분 작장 이식에 따른 부장 양상 차별화와 그 의미」,『韓國考古學報 第114輯』, 韓國考古學會.
- 한빛문화재연구원, 2020, 『사제 516호 임당동과 조영동 고분군 내 경산 임당 1호분(고찰 및 부록)』.
- 한승호, 2002, 「미라의 체질인류학적 계측」,『남아 미라 및 출토유물 연구논총』, 단국대학교 石宙善紀念博物館.
- 咸舜燮, 1995, 「大邱 飛山洞 37號墳 2石室 出土 冠」,『古代研究』第4輯, 古代研究會.
- \_\_\_\_\_, 1999, 「考古資料를 통해 본 우리나라 古代의 冠」,『三國時代 裝身具와 社會相』, 부산광역시립박물관  
복천분관.
- \_\_\_\_\_, 2012, 「新羅 樹枝形帶冠의 展開過程 研究」慶北大學校 大學院 考古人類學科 文學碩士學位論文.
- \_\_\_\_\_, 2015, 「금령총 금관」,『한국고고학 전문사전-고분 유물편-』, 국립문화재연구원 문화유산연구지식포털  
홈페이지.

# The Silla Geumryeong-tomb's ornaments and people - Access to the ornaments review and archaeological approach to its user -

Kim, Jae-Yul(Assistant Team Leader, Korea Cultural Heritage Foundation)

The Geumryeong-tomb is a tomb in the Silla period, located at the northern end of Gyeongju. It was first excavated in 1924 and again in 2018. Now in 2022, a special exhibition of past archaeological achievements and research is being held. In this tomb, which was named as a 'Geumryeong-tomb' in commemoration of the excavation of golden bell, precious Silla precious metal ornaments such as golden crown and golden belt were also excavated. The Geumryeong-tomb was recognized as the tomb of Prince Shilla. It was because the golden crown and the golden belt were all small items suitable for young people of small size.

In this article, I have illuminated the objects and the people who handled them with the material of the Geumryeong-tomb. With the results of the research accumulated until recently, I looked at the Geumryeong-tomb ornaments. Explain the speciality and production technique of the Geumryeong-tomb.

Because ornaments are artifacts, people are involved in some way. In this article, I explored the three subjects involved in the use of ornaments: the dead, the funeral, and the craftsmen.

Find out why the Geumryeong-tomb's dead man is an infant. I looked at the funeral director who is the actual leader of this funeral. The funeral ornaments prepared by the funeral organizer were derived and explained his presence. Finally, I looked at the craftsmen who made the funeral items. The main characters

on the stage of death and funeral are the dead, the funeral, and the craftsmen. And they are intertwined with relic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their correlation and Silla society with the theme of Geumryeong-tomb ornaments. This study explains the archaeological existence of Geumryeong-tomb's dead man, funeral director, and craftsmen with clues to ornaments.

**Key words :** Silla, Geumryeong-tomb, golden crown, golden belt, golden bell, ornaments, dead man, funeral director, craftsmen